

복음과 상황의 설교학적인 상관관계: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설교의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Homiletical Relationship between Gospel and Context:
Focused on the Sermonic Application from the Biblical
Narrative Texts

이승진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설교학)



본고는 복음과 상황의 상호 연관성의 문제를 설교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으로부터 설교의 적용점을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복음과 상황의 상호 연관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에 정초하고 있으며, 인간의 상황 속으로 진입한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상황의 결집물인 인간의 삶과 문화를 복음의 빛으로 변혁시키는 목표를 추구한다. 이런 목표는 설교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복음과 상황의 상호 연관성을 위한 설교학적인 전략은 특정한 상황의 맥락 속에 담긴 복음의 상황화를 고려하여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단계와, 상황화의 한계로부터 초월적이고 항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분리해 내는 탈상황화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의 회중에 대한 적실성 있는 설교를 위한 재상황화의 단계로 이어진다. 이러한 설교적인 상황화 전략은 구체적으로 본문 주해를 통한 주해의 중심사상과 보편적인 신학적 중심사상, 그리고 현실 적합성을 고려한 설교의 중심사

* 논문 접수일: 2011. 6. 23. 수정 접수일: 2011. 8. 27. 게재 확정일: 2011. 9. 3.

상을 단계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3단계 설교학적인 상황화 전략을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에 적용시켜서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현실 적합성 있는 설교 메시지를 준비할 때, 설교자는 내러티브 본문이 현대의 회중을 향하여 윤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윤리적인 적용 방안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이 개인의 정체성의 내러티브의 변화뿐만 아니라, 함께 설교를 듣고 신앙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나 교회의 공동체적인 정체성의 내러티브의 형성과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제어 : 상황화, 탈상황화, 재상황화,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

서론

기독교의 복음은 상황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은 그로부터 2천년이 지난 오늘 21세기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 복음과 상황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질문은, 초월적인 특성을 지닌 기독교 복음(the Christian gospel)과 내재성과 유한성에 속한 상황(context)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이론신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인 동시에,¹ 기독교의 진리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상호 연관성을 맺으며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실천신학적인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² 특히 실천신학적인

¹ Stanley J. Grenz와 Roger E. Olson은 20세기에 등장한 수많은 신학적인 담론들을 초월과 내재 사이에 무게중심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발전된 신학적인 탐구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정통주의는 20세기 초엽에 심화된 자유주의적인 내재성에 대한 반란으로 신학의 초월적인 차원을 강조한 신학운동이라면, 디트리히 본회퍼의 세속신학은 세속사회 속에 내재하지는 하나님의 차원을 초월성보다 더 강조하는 신학분파로 이해하고 있다.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20th Century Theology: God & the World in a Transitional Age*, 신재구 역, 『20세기 신학: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중심으로 한 현대 신학 비평』(서울: IVP, 1997), 7-9.

² 이론(theory)과 실천(praxis)의 통합에 관한 실천신학적인 탐구를 상황으로부터 출발할 뿐

범주에 속한 이 질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한다면, 복음이 특정한 문화 속에서 올바르게 선포되고 적용되는 방법을 모색하는 선교학적인 질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³ 또 특정한 상황에 속한 회중을 향한 복음의 효과적인 선포에 관한 설교학적인 질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복음과 상황의 연관성에 관한 질문을 설교학적인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즉 특정한 문화의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성경 본문의 진리가 시공간의 장벽을 넘어서 또 다른 문화권의 상황에 속한 오늘날의 회중과 어떻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과거에 기록된 성경 본문이 오늘의 회중에게 진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교학적인 관점에서 복음과 상황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복음과 상황의 연관성에 관한 설교학적인 논의를 넓게 분산시키지 않고 좀 더 특정한 주제에 국한시키기 위하여, 성경의 내러티브 장르와 현대적인 상황에 속한 회중을 향한 설교의 적용점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1. 문화 변혁을 향한 복음과 상황의 연관성

1.1. 복음과 상황의 상관관계

복음과 상황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이론적인 토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incarnation)에서 확보될 수 있다.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

만 아니라 이론과 실천을 프라시스로 통합하려는 대표적인 현대 실천신학자들로는 Seward Hiltner, Gijbert Dingmans, van der Ven, Daniel Louw를 들 수 있다. Cf. Gijbert D. J. Dingemans, "Practical Theology in the Academy: A Contemporary Overview," *The Journal of Religion* 76/1 (January 1996): 82-96.

³ 1970년대 이후 선교학 진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던 상황화(contextualization)나, 토착화(indigenization), 사회화(enculturation), 문화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적응(accommodation), 문화 변용(acculturation), 지역신학(local theology)과 같은 쟁점들은 선교 현장에서 복음과 상황 사이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선교학적인 탐구의 결과물들이다. Cf. Bruce Nicholls, *Contextualization*, 김성웅 역, 『상황화: 복음과 문화의 신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26-49.

⁴ 예를 들어 Daniel Shaw와 Charles E. Van Engen과 같은 선교학자들이 선교 전략을 모색

신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인간의 인식의 능력과 범위 밖에 존재하는 삼위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인식의 범위와 수용의 한계 안으로 자신에 관한 계시를 낮추어 알리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범위 안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문화의 상황(cultural context)이다. Charles H. Kraft에 따르면 복음 전달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화(culture)란 인류가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축적한 유무형의 가치 있는 자산을 가리킨다.⁵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학적이고 정신적인 자산인 문화 속에서 기독교 복음을 수용한다. 그래서 문화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배제한다면 복음을 전달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다.⁶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 그리고 복음의 전달은 모두 인간 수용자가 정보 메시지를 이해하고 삶을 영위하는 특정한 문화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복음을 설교하려는 설교자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수용되는 회중의 문화적인 상황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수용자가 속한 특정한 문화의 상황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전달된다면, 복음 선포 이후에 복음과 상황의 연관성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경적인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발견된다.

하는 출발점으로 삼는 것도 바로 성육신 원리이다. Cf. R. Daniel Shaw & Charles E. Van Engen, *Communicating God's Word in a Complex World*, 이대현 역, 『기독교복음전달론』 (서울: CLC, 2007),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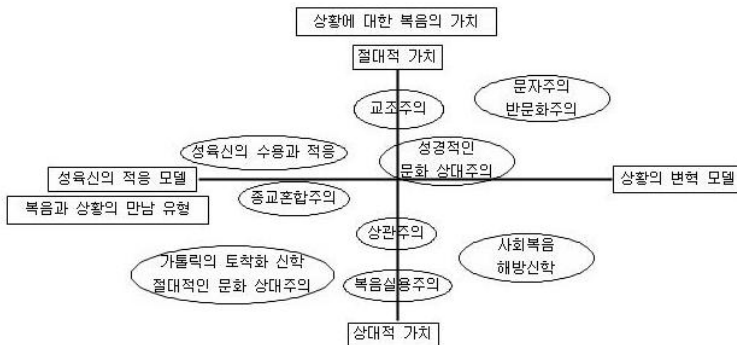
⁵ Charles H. Kraft, *Christianity in Culture*, 임윤택·김석환 역, 『기독교와 문화』 (서울: CLC, 2006), 110.

⁶ David Augsburger, "Cross-Cultural Preaching," in William Willimon & Richard Lischer (eds.),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이승진 역, 『설교학 사전』 (서울: CLC, 2003), 638; Shaw & Van Engen, 63.

1.2. 성경적인 문화 상대주의

복음이 인간의 특정한 상황과 관계를 맺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는 관점은 신학적인 전통이나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아래의 도표는 복음과 상황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몇 가지 모델들을 보여준다. 그런데 복음과 상황의 연관성에 관한 모델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상황과 관계를 맺은 이후에는 반드시 그 복음이 특정한 문화적인 상황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은 결코 부인될 수 없다.

<복음과 상황의 연관성에 관한 모델들>



복음에 의한 문화 변혁의 당위성은 성경적인 문화 상대주의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된다. 성경적인 문화 상대주의는 복음과 회중의 문화적인 상황의 상호 관계에서 복음을 절대적인 우위에 놓지만, 문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가치만을 부여한다.⁷ 또한 성경적인 문화 상대주의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의 상황이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⁷ Richard Niebuhr가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서 소개한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모델은 이 주제에 대한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Cf.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홍병룡 역,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P, 2007), 309-50.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결코 절대적인 위치를 점할 수 없으며, 다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환경이자 그 복음의 능력을 표현하는 도구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되, 복음의 빛 아래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대상임을 염두에 둔다.⁸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한 문화권에 속한 복음 전달자가 특정한 문화권을 향하여 기록된 성경으로부터 영원한 진리를 발굴해서 또 다른 문화적인 상황 속에 처한 오늘의 회중들에게 효과적이고 적실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설교의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이제 인간의 다양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효과적이고 적실성 있게 진행되는 복음 선포와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의 해석과 전달의 전체 소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2. 특정한 문화의 상황을 고려하는 복음의 소통 과정

2.1.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복음 전달의 4차원 모델

복음 전달에 관한 전통적인 의사소통 모델은 저자(또는 발신자)와 성경 본문 (또는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독자(또는 수신자)로 이루어진 세 요소의 상호 연관성에 집중한다.⁹ 저자와 텍스트, 그리고 수신자의 3 요소로 이루어진, 복음 전달에 관한 전통적인 소통 모델에서는 소통의 관심사가 주로 성경 텍스트로부터 수신자(또는 복음 전달자)가 복음의 올바른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 작업에 집중되었다. 말하자면 복음 전달에 관한 전통적인 소통 모델에서는 성경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초점이 집중되며, 소통의 성패가 복음 전달자가 성경으로부터 복음의 올

⁸ Kraft, 228.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관습을 고려하여 헬라인 부친과 유대인 모친을 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지만(행 16:3), 헬라 출신의 제자 디도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갈 2:3).

⁹ Shaw & Van Engen, 133.

바른 의미를 이해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 모델의 약점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저자나 텍스트, 그리고 복음 전달자 모두가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 속에 둘러싸여 있으며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각 요소를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문화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복음전달자가 텍스트로부터 올바른 의미를 획득하였더라도 복음 전달자와 복음 수용자 사이에는 새로운 소통의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소통 전략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소통 모델의 약점을 직시한 Osborne은 성경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텍스트가 원래 의미했던 것(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의미하는 것(현재) 모두를 밝혀내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⁰ Shaw와 Van Engen도 같은 맥락에서 복음전달에 관한 전통적인 소통의 3차원 모델에 복음 수용자의 1차원을 보완하고 또 각 단계에서 극복해야 할 문화적 상황의 한계를 고려하여 복음 전달의 4차원 모델을 제안하였다.¹¹

<다문화 상황 속에서 복음전달의 4차원 모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						
성경의 저자 (1차원)	↔ (기록)	성경 본문 (2차원)	↔ (해석)	복음 전달자 (3차원)	↔ (설교)	복음 수용자 (4차원)
특정한 상황, 공동체, 문화, 세계관	상황 화	특정한 상황, 공동체, 문화, 세계관	탈상 황화	특정한 상황, 공동체, 문화, 세계관	재상 황화	특정한 상황, 공동체, 문화, 세계관
본문 주해의 중심사상 ↔ 신학적인 중심사상 ↔ 설교의 중심사상						

효과적인 복음 전달을 위하여 Shaw와 Van Engen이 제안하는 복음전달의 4차원 모델은, 전통적인 소통 모델에서 간과하였던 요소, 즉 복음이

¹⁰ G. R. Osborne, *The Hermeneutical Spiral: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1), 5; W. Kaiser and M. Silva,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rmeneutics: The Search for Meaning*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4), 44-45.

¹¹ Shaw & Van Engen, 135.

소통의 각 단계마다 문화적 상황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전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Shaw와 Van Engen에 따르면 먼저 성경의 저자는 이미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원래 독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를 전달(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미의 상황화(contextualization)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서 성경 본문에 접근하는 복음 전달자는 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본문 속에 이미 의미가 특정한 상황과 연관성을 맺고 상황화되어 있음(contextualization)을 직시하여 오늘의 상황과 연관성이 없는 요소를 분리해 내는 탈상황화(de-contextualization)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오늘의 복음 전달자와 수용자를 향하여 의도하시는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탈상황화된 보편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의 복음 수용자에게 새롭게 선포될 수 있도록 오늘 회중의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선포하는 재상황화(re-contextualization)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미가 원래 성경 저자의 문화적인 한계를 떠나서 상황화와 탈상황화, 그리고 재상황화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오늘의 복음수용자는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살아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가 성경으로부터 복음 수용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다양한 문화적인 간격과 그런 간격을 극복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되는 궁극적인 복음의 의미의 통시성을 모두 아우르는 소통 모델은 예전의 3차원 모델에 비하여 복음 전달의 전체 과정에서 복음 수용자 역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복음 수용자들에게 말씀하시도록 복음전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세밀하고도 일관성 있게 고려해야 할 소통의 다양한 요소들과 차원들, 그리고 각각의 단계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2.2.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3단계 설교해석학

복음전달의 4차원 모델은 복음이 복음 수용자의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경본문을 올바르게 주해한 다음에 그 본문으로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미를 오늘날 살아가는 회중에게 선포해야 하는 설교자들을 위한 설교 해석학의 영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모델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들로 는 Timothy S. Warren, Millard J. Erickson 그리고 James L. Heflin 등이 있다. Millard Erickson과 James Heflin은 성경 본문으로부터 문화적인 다양성을 고려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미를 해석해 낸 설교자가 본문의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서 오늘의 청중의 문화에 적합하게 본문의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을 3단계 해석학으로 설명한다. 이 3단계 해석학(a third-step hermeneutic)은, 성경 본문에서 당시의 시대와 장소에 적용되었던 의미를 파악하는 일과, 이 의미로부터 다시 항구적이고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의미를 추출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성경 구절이 지향했던 당대의 적용과 대등하게 오늘날의 상황에 해당되는 적용으로 바꾸주는 것의 세 단계로 이뤄졌다.¹²

3단계 해석학에서 첫번째 단계는 성경 본문이 특정한 시대적, 역사적, 및 문화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음을 고려하여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파악하는 단계이다. 성경 본문이 특정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전달자가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특정한 문화적 상황의 요소와 어떻게 만나면서 의미를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 설교자는 3단계 해석학의 첫째 단계에서 주해 과정을 거쳐서 상황화된 본문 속에서 주해의 중심사상(exegetical main idea)을 파악해 내야 한다.

3단계 해석학의 두번째 단계는 본문 해석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본문 주해의 중심사상으로부터 문화적 상황을 분리시키는 탈상황화(de-contextualization)

¹² Millard J. Erickson & James L. Heflin, *Old Wine in New Wineskins: Doctrinal Preaching in a Changing World*, 이승진 역,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 설교』 (서울: CLC, 2005), 209.

의 과정을 거쳐서 본문의 중심사상을 신학적인 중심사상(theological main idea)으로 전환한다. 성경 본문으로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궁극적인 의미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설교자는 본문의 문화적 상황이나 환경의 한계에 그대로 남겨둬야 할 문화적인 요소는 무엇이고, 문화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세대에게 항구적으로 적용 가능한 신학적인 중심 사상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레위기 25장 39-46절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관례에 따라 잠정적으로 허용한다. 레위기 25장 39-46절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궁극적인 의미가 들어 있지만, 그 의미를 오늘날의 상황 속으로 가져올 때 복음전달자는 본문 속에서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상황의 요소인 “노예 제도”를 탈상황화시켜서 “채무자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라는 항구적이고 신학적인 중심 사상을 끌어내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한다.¹³ 또 탈상황화의 과정에서 복음 전달자는 신학적인 중심사상을 조직신학의 전체 구도 속에 대입시켜 보면서 그 조직신학 속에서 본문의 핵심사상이 정당하게 수용될 수 있으며 적절히 자리매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¹⁴

3단계 해석학의 마지막 단계는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신학적인 중심 사상을 오늘의 청중의 문화에 효과적인 설교의 중심사상(homiletical main idea)으로 전환하는 재상황화(re-contextualization)의 단계이다. Millard Erickson과 James Heflin에 의하면, “성경에 언급된 여러 교리들은 주로 농경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었던 개념들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¹³ 성경 본문에 내포된 시대한계적인 문화적인 요소를 탈상황화시켜야 하는 또 다른 전형적인 사례들로는, 할례 제도(창 17:10-14), 과부가 고인의 남은 형제와 결혼하여 가계의 혈통을 계속 있도록 하는 수혼제도(창 38: 1-30, 신 25:5-6), 일부다처제(창 16:4; 삼하 12:7-8), 시죄법에 의한 재판(민 5:11-28) 등등이 있다. Cf. Kraft, 228. 시대를 막론하고 결혼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는 일부일처제였지만 구약시대의 최악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는 차악(次惡) 우선의 논리에 따라 일부다처제가 잠정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Christopher Wright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문화에 대응했던 전략을 전적인 배격과 조건부 관용, 그리고 비판적인 인정의 세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구약시대의 일부다처제를 조건부 관용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Cf. Christopher J. H. Wright,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김재영 역,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서울: IVP, 2006), 485-92.

¹⁴ Richard L. Pratt, *He Gave Us Stories: The Bible Student's Guide to Interpreting Old Testament Narratives*, 이승진·김정호 외 1명 공역, 『구약의 내러티브 해석』 (서울: CLC, 2007), 449-77.

개념들은 1980년대 이후 미국 전체 노동인구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3%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친밀한 관계를 그대로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새로운 이미지를 새롭게 찾아내야 한다”.¹⁵

Millard Erickson과 James Heflin이 제안하는 3단계 해석학은 그대로 Timothy S. Warren의 설교(의 준비와 전달)를 위한 신학적인 과정에서도 Steven D. Mathewson의 구약의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주해와 설교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예를 들어 Timothy Warren이 제안하는 설교를 위한 신학 작업의 진행 과정은, 성경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로부터 찾아낸 본문의 의미를 오늘 청중의 상황에 걸맞게 재상황화시켜서 전달하는 과정을 주해의 중심사상(exegetical main idea)과, 신학적인 중심 사상(theological main idea), 그리고 설교의 중심사상(homiletical main idea)의 단계로 설명한다.¹⁶ 이러한 3단계의 변환 과정을 통해서 성경 본문은 현대의 회중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복음과 상황의 긴장 속에서 설교자가 메시지의 무게중심을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여러 설교 모델들이 등장하여 서로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다.

3. 설교학적인 관점에 비추어 본 복음과 상황의 연관성

3.1. 본문 설교 vs 주제 설교

설교학의 영역에서 기독교 복음과 (회중의) 상황의 연관성을 결정할 때

¹⁵ Erickson & Heflin, 232.

¹⁶ Timothy E. Warren, “The Theological Process in Sermon Preparation,” *Bibliotheca Sacra* 156 (1999, July-Sep. no 623): 336-54. Steven D. Mathewson은 3단계 변환 과정을 주해의 중심사상(exegetical idea)과 신학적인 중심사상(theological idea), 그리고 설교의 중심사상(homiletical idea)의 3단계 변환 과정으로 설명한다. Steven D. Mathewson,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이승진 역 (서울: CLC, 2004), 140-41.

메시지의 무게중심을 성경 본문보다는 회중의 상황과 부합하는 특정한 주제에 위치시킨 대표적인 설교 모델이 주제설교(topical preaching)이다. 종종 성경 본문을 중요시하는 본문 설교(textual preaching)와 대비되는 설교의 유형으로 간주되는 주제설교는, 설교자가 의식하는 청중의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부각되는 회중의 문제나 필요, 또는 관심을 담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설교를 말한다.¹⁷

모든 주제설교가 다 비성경적인 설교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제설교가 “설교의 주제를 성경 본문에서 찾는 대신에 오늘날 회중의 상황이나 문제점에 근거하여 설교의 핵심 주제를 정하는” 경우에,¹⁸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항구적인 기독교 복음의 가치와 권위가 특정한 상황의 필요나 문제에 종속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Lisch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주제설교는 복음이 실용주의로 전락될 수 있는 약점이 있다.¹⁹ 기독교의 복음이 상황에 대하여 변혁의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상황 논리나 적실성에 대한 필요성에 붙잡혀서 지나치게 종속적인 한계에 갇힐 때 파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들로는 실용주의 기독교나 개인주의 기독교, 또는 소비자 중심의 감성적인 영성을 들 수 있다.²⁰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시대의 필요나 복음의 적실성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²¹

¹⁷ James W. Cox, “주제설교”, William H. Willimon & Richard Lischer, eds.,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이승진 역, 『설교학사전』 (서울: CLC, 2003), 613-15; 곽안련,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66.

¹⁸ Cox, 614.

¹⁹ Richard Lischer, *A Theology of Preaching: The Dynamics of the Gospel* (Nashville: Abingdon, 1981), 50-61.

²⁰ 미국제 복음주의의 저변에 깔린 실용주의 기독교나 개인주의 기독교, 또는 소비자 중심의 감성적인 영성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라. Francis A. Schaeffer, *The Great Evangelical Disaster*, 윤두혁 역,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43-70; Mark A. Noll,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 이승학 역,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서울: 엠마오, 1996), 95-121; Michael Scott Horton, *Made in America: The Shaping of Modern American Evangelicalism*, 김재영 역,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서울: 나침반, 1996), 75-148; Michael Scott Horton, *Beyond Culture Wars*, 김재영 역, 『세상의 포로된 교회』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1), 18-167; Michael Scott Horton, *In the Face of God*, 김재영 역,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말라』 (서울: 규장, 2005), 35-70.

²¹ Mark Alan Johnson의 지적과 같이 고대의 복음을 현대의 상황에 적실성 있게 선포하기 위한 대표적인 신학적인 탐구 중의 하나가 Bultman의 비신화화이다. 하지만 비신화화된 복음

기울어질 때, 기독교 복음은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위치에서 그 가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인간의 상황과 필요에 복음의 가치가 종속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과 상황의 연관성을 설교학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Allen은, 복음에 기반한 기독교적인 비전을 특정한 상황 속에 비추어서 회중의 상황을 재조명해보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인 비전으로의 변혁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복음과 상황이 연관성을 맺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²²

3.2. 구속사 설교 vs 모범 설교

복음과 상황 사이에서 메시지의 무게중심을 어느 쪽에 위치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설교학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표출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설교 모델이 바로 구속사 설교(redemptive history preaching)이다. 구속사 설교를 강조하는 진영에서는 성경의 내러티브 장르에 대한 설교의 우선적인 목적을 역사 속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구속적이고 계시적인 사건들에 대한 해설과 선포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선적인 목적을 넘어서 내러티브 본문에서 오늘의 회중을 향한 모범적이고 윤리적인 적용점을 이끌어내는 설교를 가리켜서 모범 설교(moralization preaching)로 비판한다.²³ 성경은 도덕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일련의 교훈들 모음집도 아니고 과거의 여러 범례적인 사건들에 대한 유추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건 판례집도 아니라 무엇보다도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내러티브 장르에 대한 설교가 역사 속에서 발생한 하나

은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적용하는 데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Cf., Mark Alan Johnson, *Christological preaching for the Postmodern Era*, UMI Dissertation Service 1994, 27. 대표적인 현대 설교학자인 David Buttrick도 복음과 상황의 연관성을 상황 중심으로 접근할 때의 한계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David Buttrick, *Homiletics: Moves and structur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404-18.

²² Ronald J. Allen (ed.), *Theology for Preaching: Authority Truth and Knowledge of God in a Postmodern Ethos* (Nashville: Abingdon, 1997), 66.

²³ Sidney Greidanus,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권수경 역,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서울: SFC, 2003), 42.

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해설과 선포에 치우친 나머지 회중의 상황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경우에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설교에서 적용점이나 적실성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본문에서 문자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설교에서는 회중의 실천이나 설교의 적용점, 또는 회중의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 또는 성화를 위한 규범들의 중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Derek Thomas는 구속사적 설교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런 형태의 설교는 구원사의 흐름을 다루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이런 설교를 처음 들을 때는 손에 땀을 쥐듯 흥미진진하다. 하지만 여러 번 듣다 보면, 늘 구원 역사를 반복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진다. 더욱이 이런 설교는 도덕적인 적용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중은 자신의 삶과는 무관한 한 편의 드라마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즉, 지적으로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지만, 마음에는 별다른 감동을 받지 못한다. 이처럼 구원사적인 설교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적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²⁴

성경의 내러티브 장르의 일차적인 목표는 후대의 신자들이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할 도덕이나 윤리, 또는 성화에 관한 규정목록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와 구원에 관한 일방적인 진술과 선포에 있다. 그러나 구속사 설교가 자칫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해설에 머무르고 회중의 상황을 향한 적실성 있는 선포와 적용으로 나아가지 못할 경우에, 복음과 상황 사이의 연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에 대한 일방적인 진술과 선포로서의 내러티브 본문들은 후대의 신자들과 독자들에게 규범적이고 교훈적

²⁴ Derek W. H. Thomas, "Expository Preaching," Don Kistler (ed.), *Feed My Sheep: A Passionate Plea for Preaching*, 조계광 역, 『최고의 개혁 설교자들이 말하는 설교 개혁』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90.

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러티브 장르의 본문들이 오늘의 특정한 상황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규범적이고 교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기독교의 설교이다. 구속사 설교론의 한계에 대한 신중한 대안을 모색했던 Daniel Doriani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성경을 도덕주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성경은 실제로 이야기에서 도덕적 지침을 제공한다.”²⁵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은 문자적으로는 규범적인 조항들을 지시하지는 않더라도 시공간의 장벽을 초월하여 오늘의 신자들에게 규범적인 권위를 행사한다. “모든 성경은 …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신자를 교육하는” 기능을 한다(딤후 3:16). 그러므로 과거 역사 속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규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행사할 수 없느냐라고 묻는 것은 부정확한 질문이다.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설교와 관련하여 필요한 좀 더 발전적인 질문은,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이 오늘의 신자들에게 규범적인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는 해석학적인 (또는 설교학적인) 전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이 오늘의 상황에 속한 신자들에게 교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4. 구약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재상황화의 설교

구약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설교 방식 중의 하나가 바로 내러티브 본문에 기록된 과거 구속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해설에 치중하는 구속사 설교이다. 하지만 내러티브 본문의 구속사적인 차원을 설교에서 중요하게 인정하면서도 현대적인 적용을 간과하지 않는 Graeme Goldsworthy는 구속사의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적실성 있는 설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²⁵ Daniel Doriani, *Putting the Truth to Work: The theory and Practice of Biblical Application*, 정옥배 역,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하다』 (서울: 성서유니온, 2009), 261.

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해는 거의 모든 설교 준비에서 중요한 측면이기는 하지만, 주해가 곧 설교는 아니다. 주해란 어떤 본문이 그 근접 전후 문맥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설교는 그 본문의 의미에서 시작해서, 오늘날의 청중의 정황에서 그 의미에 대한 합당한 적용으로 복음에 비추어서 진행해야 한다.²⁶

그렇다면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합당한 적용이 결합된 적실성 있는 설교의 실체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성적인 유혹의 문제로 고민하는 기독교 청년들을 목회하는 설교자라면 이들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런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는 요셉에 관한 내러티브 본문은 오늘날의 기독교인 젊은이들에게 단호히 “성적인 유혹의 환경에서 재빨리 벗어나라”는 도덕적인 규범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설교를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이 본문이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규범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은 단순히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차원을 훨씬 능가한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은 단순히 “음란한 여인을 멀리하라”는 윤리적인 규범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의 역사가 먼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에게서 도망친 요셉의 행동의 궁극적인 의미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복음의 맥락과 분리된 채로 오늘의 현대적인 상황으로 전달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본문으로 성적인 유혹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설교는 잘못된 인가? 설교자는 이 본문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 현대적인 적용은 회중 각자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적용하도록 적용

²⁶ Graeme Goldsworthy, *Preaching the Whole Bible as Christian Scripture*, 김재영 역, 『성경 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197.

점을 열어 놓아야 하는가?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들을 적용 지향적으로 설교할 때에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1. 내러티브 장르의 독특성을 인정하라

내러티브 장르에 속한 본문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인간의 윤리적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관한 선언이다. 내러티브 본문이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규범적인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내러티브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현대의 회중이 그대로 따라 실천할 몇 가지 윤리적인 지침들이나 규범들을 암시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발생했음을 계시적인 차원에서 권위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들이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이런 저런 규범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은 그 본문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원칙이나 교훈을 주장하기 이전에, 내러티브 본문을 대하는 오늘의 독자들로 하여금 주변의 사물과 역사와 세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향하여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깨달음), 그런 깨달음에 근거하여 오늘 어떻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처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속된 가치관 대로 처신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관에 합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러티브 본문의 독특한 가치에 주목한 신학자들은 내러티브 본문에 내포된 적실성(relevance)의 가치가 이렇게 상황에 종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간파하였다. 예를 들어 내러티브 본문의 독특한 가치가 역사비평의 등장으로 인하여 서구 교회에서 점차 사라져간 과정들을 추적했던 Hans Frei에 의하면, 복음서의 서사 논리는 서술적(descriptive)이라기보다는 귀착적(ascriptive)이라고 한다. 그래서 복음서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인격의 소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며 복음서 저자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정체성이 독자들의 심상에 또렷이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양한 직위와 특성과 행동을 묘사적으로 배열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⁷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교론에서 신자의 구원론이 파생되는 것이지, 신자의 합당한 구원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교론이 종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Sidney Greidanus도 구약의 내러티브 장르는 “본질적으로 예언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건들을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관점에서 살핀다”는 점을 강조한다.²⁸ 말하자면 성경의 내러티브 장르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사건들을 담고 있지만, 그런 사건들에 대한 묘사는 해석자의 독특한 관점이 개입되어 있으며 해석자의 독특한 관점은 계시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 해석 단계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2.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은 다양한 차원에서 윤리적 규범을 제공한다

내러티브 본문을 적실성 있게 설교하려면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개별 내러티브를 해석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장르를 위한 해석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해의 중심사상과 신학적인 중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본문의 중심사상을 설교의 중심사상과 적용점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가치와 기능과 관련하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교

²⁷ Charles L. Campbell, *Preaching Jesus: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이승진 역, 『프리칭 예수』 (서울: CLC, 2001), 77.

²⁸ Sidney Greidanus,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김영철 역,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서울: 여수론, 1999), 174.

훈한다(딤후 3:16-17). 이 구절에서 주목할 점은 성경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 성경 독자와 설교 회중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을 주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성도의 성화와 건덕을 위함이라면,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성도의 성화와 건덕을 위함이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설교자는 “역사 속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내러티브 본문을 설교하려고 할 때 설교자가 직면하는 문제점은 이 본문이 때로는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점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본문은 분명 “역사 속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진술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성도들도 자기 아이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적용점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달리 잠언이나 전도서 또는 율법 조항들, 그리고 서신서의 명령법에 관한 구절들은 독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 항목과 규범들을 제시한다.

설교는 분명한 적용점을 제공해 주어야 하지만²⁹ 내러티브 본문은 분명한 적용점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설교의 적용점을 단순히 윤리와 도덕, 또는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이나 실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는 좁은 범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겨냥하는 적용지침을 포함하여 관점의 전환이나 성품의 전환에 관한 메시지나 이미지들도 설교의 적용으로 폭 넓게 이해하는 것이다.³⁰

²⁹ 대부분의 설교학자들은 적용이 없으면 설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Brueggemann이나 Mitchell은 설교의 적용에서 도덕적인 호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혁적인 이미지가 제시되어야 회중의 변화된 삶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Walter Brueggemann, *Hopeful Imagination: Prophetic Voices in Exi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25; Henry H Mitchell, *Celebration and Experience in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1990), 80. 또 Van der Geest는 설교의 적용 단계에서 설교자가 회중에게 세부적인 지침이나 행동 규범들을 제시하는 것은 회중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본다. Cf. Van der Geest, *Presence in the Pulpit: The Impact of Personality in Preaching* (Atlanta: John Knox, 1981), 104.

기독교 윤리학자 Gustafson에 따르면, 성경이 윤리적 판단의 토대로 작용하는 데는 다음 네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한다. 문자적인 규범을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인 도덕 규정집으로 기능하는 방식과 보편적인 입장에서 지향해야 할 도덕적인 이상을 천명하는 방식,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윤리적인 행동의 범례(paradigm)를 제시하는 방식, 윤리적인 삶이 드러나는 상징 세계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성경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윤리적인 규범을 제시한다고 한다.³¹ 이상의 네 가지 방식 중에서 첫번째 방식은 성경 본문이 오늘날의 신자들이 직접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윤리 규범을 문자적이고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대의 신자의 윤리적인 규범이나 실천적인 적용은 반드시 구약 내러티브로부터 문자적이고 직접적으로만 제시할 필요는 없다. 오늘날의 신자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위한 도덕적인 이상이나 상징 세계의 구축에 필요한 저변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역시 필요하기 마련이고, 구약의 내러티브를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구약 내러티브로부터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이나 하나님 주도적인 구원 역사의 가치관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약 내러티브의 청중 적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4.3.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에서 공동체 정체성의 내러티브를 이끌어내라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설교 메시지의 적용점에 관한 고민을 해결할 또

³⁰ 상황에 적절한 적용의 문제를 성경 안과 성경 밖의 이분법의 구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적인 진행 과정에 의한 시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이전에 발생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러티브 진술은 이후의 이스라엘의 경건을 위한 결정적인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경건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바로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서술하는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다. Cf. Walter Brueggeman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류호준·류호영 역, 『구약신학』 (서울: CLC, 2003), 122; Paul House, "Examining the Narratives of Old Testament Narrative: An Exploration in Biblical Theology,"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7 (2005): 229-45.

³¹ James M. Gustafson, "The Place of Scripture in Christian Ethics: A Methodological Study," *Interpretation* 24/4 (1970): 439-44.

다른 방법은,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러티브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간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회중의 삶 속에, 또는 공동체 속에 구현됨으로 그 신앙 공동체나 교회만의 독특한 정체성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 구원 역사에 관한 내러티브는 성경 안에 간혀 있는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결정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성경의 내러티브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될 때 설교자와 회중은 그 내러티브를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하는 근간으로 믿고 그 내러티브의 세계관이 지시하는 대로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에 관한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biblical metanarrative)가 설교를 통해서 특정한 지역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게 선포되어 변화된 신앙 공동체를 일구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동일한 집합의식을 함께 공유해 가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정체성의 내러티브(communal identity narrative)이며, 이러한 공동체 정체성의 내러티브와 관련하여 유용한 통찰을 제공하는 신학자는 George Stroup이다.

George Stroup의 문제의식은 현대의 기독교 신자들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신앙이나 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한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³² “많은 기독교인들의 개인적인 정체성이 기독교적인 믿음과 기독교적인 서사체계에 의하여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공동체의 가치관과 서사체계에 의하여 구축되고 있는 실정이다.”³³ Stroup에 따르면 오늘날의 교회가 그 내면에 성경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적인 정체성의 혼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George Stroup은 객관적인 구속사와 주관적인

³² George W. Stroup, *The Promise of Narrative Theology* (Atlanta: JohnKnox Press, 1981), 21-22.

³³ Stroup, 36.

적용의 역사가 서로 충돌하는 사건에 대한 Richard Niebuhr의 계시관을 Hans Frei의 Narrative theology와 결합시켜서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내러티브”(communal identity narrative) 속에서 객관적인 구속사와 주관적인 적용의 역사의 연결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기독교 공동체 정체성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오늘날 혼돈 속에 처한 기독교 교회의 영적 정체성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George Stroup에 따르면, 기독교 공동체도 신자 개개인처럼 그 공동체 나름의 독특한 정체성을 담아내는 정체성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으며,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은 내러티브의 형태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한다.³⁴ 즉 특정한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동일한 집합의식을 공유할 때, 그렇게 공유된 집합의식(shared communal consciousness)은 공동체 정체성의 내러티브(communal identity narrative)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내러티브에 관한 George Stroup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다음 네 가지 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를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나라를 계시함으로 객관적인 계시의 권위를 확보하고 있는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또는 성경의 거대담론, biblical metanarrative)이다.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의 핵심은 창조-성육신-재창조의 맥락을 따라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다. 둘째로는 창조와 타락,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나라에 관한 객관적인 계시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고 있는 성경의 거대담론이, 성경 밖의 인류 역사와 교회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온 과정 속에서(또는 초림과 재림의 중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나타난 과정에서 형성된 기독교적인 내러티브(Christian narrative)를 생각해 볼 수 있다.³⁵ 교회사 속에서 형성된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독교적인 내러티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셋째는 성경의 거대담론

³⁴ Stroup, 91-95.

³⁵ Stroup에 의하면 기독교의 서사(Christian narrative)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 가운데에서 들려지는 일종의 상황과 배경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계시는 공동체적인 정체성의 서사(communal identity narrative)와 개인의 정체성의 서사(individual identity narrative)가 신앙 공동체의 사역 속에서 서로 충돌하여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경험된다고 한다. Cf. Stroup, 91, 95, 231.

과 기독교적인 내러티브들이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제시되고 선포됨으로써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 함께 모인 유기적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설립과 이후의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의 내러티브(Communal identity narrative)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자 개개인이 기독교 내러티브나 공동체 정체성의 내러티브의 영역 안에서 성경의 거대담론과 만나면서 회심으로부터 성화의 단계로 발전하면서 개인의 영적 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individual identity narrative)가 있다.

이상의 내러티브들 중에서 오늘날 정체성의 혼란 속에 처한 기독교 교회가 본래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George Stroup에 의하면 개인의 정체성의 내러티브가 공동체의 정체성의 내러티브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기독교적인 내러티브가 파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⁶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대담론의 설교를 들은 신자들과 교회가, 그 설교를 계기로 교회와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서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설교를 통해서 신자 개개인의 내러티브가 공동체적인 정체성의 내러티브와 서로 상호작용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정체성의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은 내러티브들이 결국 기독교적인 내러티브로 편입될 때, 성경이 천명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타내러티브는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고, 그런 현실적인 적용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역사 속에서 주님 재림의 날까지 계속 지속되며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을 다루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가 회중 가운데 선포될 때, 그 회중들은 각자 자신의 개인적인 정체성의 내러티브를 설교 현장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개인의 정체성의 내러티브가 성경의 메타 내러

³⁶ Stroup, 91, 95-96, 170.

티브와 서로 충돌하고 상호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이러한 영적 변화를 경험한 개인들이 서로 모임으로써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은 그 교회만의 독특한 내러티브로서의 공동체 정체성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정체성의 내러티브가 설교에 포함될 때 비로소 그 설교의 적용점, 또는 적용적인 차원의 설교 메시지는 단순히 신자 개개인에게 도덕적인 행동 지침을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나 교회 회중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언덕 위에서 세상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이상으로 복음과 상황의 상호 연관성의 관점에서 성경 본문에 대한 현실 적합성이라는 설교학적인 쟁점을 살펴보았고 특히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서술하는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적용 지향적인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인 토대를 모색하였다. 복음과 상황의 상호 연관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에 정초하고 있으며, 인간의 상황 속으로 진입한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상황의 결집물인 인간의 삶과 문화를 복음의 빛으로 변형시키는 목표를 추구한다. 이런 목표는 설교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복음과 상황의 상호 연관성을 위한 설교학적인 전략은, 특정한 상황의 맥락 속에 담긴 복음의 상황화를 고려하여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단계와 상황화의 한계로부터 초월적이고 항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분리해 내는 탈상황화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회중에 대한 적실성 있는 설교를 위한 재상황화의 단계로 이어진다. 이러한 설교학적인 상황화 전략은 구체적으로 본문 주해를 통한 주해의 중심사상과 보편적인 신학적 중심사상, 그리고 현실 적합성을 고려한 설교의 중심사상을 단계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3단계 설교학적인

상황화 전략을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에 적용시켜서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현실 적합성 있는 설교 메시지를 준비할 때, 설교자는 내러티브 본문이 현대의 회중을 향하여 윤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윤리적인 적용 방안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러티브 본문이 개인의 정체성의 내러티브의 변화뿐만 아니라 함께 설교를 듣고 신앙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나 교회의 공동체적인 정체성의 내러티브의 형성과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고문헌

- Allen, Ronald J. (Ed.). *Theology for Preaching: Authority Truth and Knowledge of God in a Postmodern Ethos*. Nashville: Abingdon, 1997.
- Augsburger, David. "Cross-Cultural Preaching." In William Willimon & Richard Lischer (Eds.).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이승진 역. 『설교학 사전』. 서울: CLC, 2003, 638-39.
- Brueggemann, Walter. *Hopeful Imagination: Prophetic Voices in Exi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 _____.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류호준 · 류호영 역. 『구약신학』. 서울: CLC, 2003.
- Buttrick, David. *Homiletics: Moves and Structur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 Campbell, Charles L. *Preaching Jesus: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이승진 역. 『프리칭 예수』. 서울: CLC, 2001.
- Cox, James W. "주제설교". William H. Willimon & Richard Lischer (Eds.).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이승진 역. 『설교학 사전』. 서울: CLC, 2003, 613-15.
- Dingemans, Gijisbert D. J. "Practical Theology in the Academy: A Contemporary Overview." *The Journal of Religion* 76/1 (January 1996): 82-96.
- Doriani, Daniel. *Putting the Truth to Work: The Theory and Practice of Biblical Application*. 정옥배 역.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하다』. 서울: 성서유니온, 2009.
- Enns, Peter. *Inspiration and Incarnation: Evangelicals and the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김구원 역.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 서울: CLC, 2006.

- Erickson, Millard J. & James L. Heflin. *Old Wine in New Wineskins: Doctrinal Preaching in a Changing World*. 이승진 역.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 설교』. 서울: CLC, 2005.
- Geest, Van der. *Presence in the Pulpit: The Impact of Personality in Preaching*. Atlanta: John Knox, 1981.
- Goldsworthy, Graeme. *Preaching the Whole Bible as Christian Scripture*. 김재영 역.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선교회, 2002.
- Greidanus, Sidney.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김영철 역. 『성경 해석과 성경적 설교』. 서울: 여수론, 1999.
- _____.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권수경 역.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서울: SFC, 2003.
- Grenz, Stanley J. & Roger E. Olson. *20th Century Theology: God & the World in a Transitional Age*. 신재구 역. 『20세기 신학: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중심으로 한 현대 신학 비평』. 서울: IVP, 1997.
- Gustafson, James M. “The Place of Scripture in Christian Ethics: A Methodological Study.” *Interpretation* 24/4 (1970): 439-44.
- House, Paul. “Examining the Narratives of Old Testament Narrative: An Exploration in Biblical Theology.”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7 (2005): 229-45.
- Horton, Michael Scott. *Made in America: the Shaping of Modern American Evangelicalism*. 김재영 역.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서울: 나침반, 1996.
- _____. *Beyond Culture Wars*. 김재영 역. 『세상의 포로된 교회』.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1.
- _____. *In the Face of God*. 김재영 역.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말라』. 서울: 규장, 2005.
- Kaiser, W. and M. Silva.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rmeneutics: The Search for Meaning*.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4.

- Kraft, Charles H. *Christianity in Culture*. 임윤택 · 김석환 역. 『기독교와 문화』. 서울: CLC, 2006.
- Mathewson, Steven D.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이승진 역.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서울: CLC, 2004.
- Mitchell, Henry H. *Celebration and Experience in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1990.
- Nicholls, Bruce. *Contextualization*. 김성웅 역. 『상황화: 복음과 문화의 신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Niebuhr, Richard. *Christ and Culture*. 홍병룡 역.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P, 2007.
- Noll, Mark A.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 이승학 역.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서울: 엠마오, 1996.
- Osborne, G. R. *The Hermeneutical Spiral: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1.
- Pratt, Richard L. *He Gave Us Stories: the Bible Student's Guide to Interpreting Old Testament Narratives*. 이승진 · 김정호 외 1명 공역. 『구약의 내러티브 해석』. 서울: CLC, 2007.
- Schaeffer, Francis A. *The Great Evangelical Disaster*. 윤두혁 역.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 Shaw, Daniel & Charles E. Van Engen. *Communicating God's Word in a Complex World*. 이대현 역. 『기독교복음전달론』. 서울: CLC, 2007.
- Thomas, Derek W. H. "Expository Preaching." In Don Kistler. (Ed.) *Feed My Sheep: A Passionate Plea for Preaching*. 조계광 역. 『최고의 개혁 설교자들이 말하는 설교 개혁』.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 Warren, Timothy E. "The Theological Process in Sermon Preparation." *Bibliotheca Sacra* 156 (1999, July-Sep. no 623): 336-54.
- Wright, Christopher J. H.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김재

영 역.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서울: IVP, 2006.

곽안련.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Abstract

**Homiletical Relationship between Gospel and Context:
Focused on the Sermonic Application from the Biblical
Narrative Texts**

Lee, Seung-Jin

This article studies how to apply the biblical narratives into the present congregational context in terms of homiletical relationship between gospel and context. A theological starting point of the homile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ristian gospel and the human context can be made by the incarnation event of Jesus Christ. The divine gospel revealed into the human context seeks to transform the human life and culture according to the divine gospel. This purpose could be achieved by the Christian preaching, and a possible homiletical strategy for the transforming relationship between the divine gospel and the human context could be acquired by the following three hermeneutical stages. The first stage starts from the text interpretation in the light of the contextualization of the text. The second de-contextualization stage seeks to distill the general and universal message from the text. The last re-contextualization stage applies this universal message into the present congregation for the relevant serm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homiletical contextualization strategy, preachers need to acquire the exegetical main idea by the careful and diligent text study, the general and theological main idea, and the homiletical main idea applicable into the present congregational situation.

When preachers prepare the relevant and applicable sermon message

from the biblical narrative texts with this three steps of the homiletical contextualization strategy, they should consider the ethical and applicative variety of how to apply the biblical narrative texts for the present congregation. They also should seek to form the communal identity narrative that shares and develops the common Christian faith from the same communal sermon message in the believing community.

Key-Words : Contextualization, De-contextualization, Re-contextualization, Biblical Narrative Text